

#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

**강구상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 
북미유럽팀 연구위원  
gskang@kiep.go.kr

**김혁중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 
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 
hjkim@kiep.go.kr

**김종혁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 
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 
jhkim@kiep.go.kr

**권혁주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 
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 
hjkwon@kiep.go.kr

**박은빈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 
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 
ebpark@kiep.go.kr



## 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미국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
3.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
4. 결론 및 정책 시사점

## 주요 내용

- ▶ 본 연구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.
- ▶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구조적 전환의 결과로 볼 수 있음.
  - 트럼프 1기(기체결 FTA 재협상, TPP 탈퇴,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, TCJA) → 바이든 (트럼프 관세 유지 및 강화, CHIPS Act, IRA 보조금 중심 공급망 재편) → 트럼프 2기 (관세, 조세, 투자, 보조금 결합 패키지)로 이어지는 정책 연속성을 통해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 기조가 구조적 전환 국면에 있음을 확인
- ▶ TCJA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에 미친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남.
  - 다중 고경효과 회귀 및 사건연구 결과, TCJA는 미국의 OFDI를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남.
  - 다만 IFDI 분석 결과는 엄밀한 대조군을 적용한 사건연구에서 TCJA 이후 미국의 IFDI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나 FDI 유입 촉진 가능성을 시사
- ▶ 제301조 대중국 관세의 무역전환 효과가 확인되나 품목별 이질성은 크게 나타남.
  - 총체적 수준에서 대중 관세율 상승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확인됨.
  - 다만 HS 품목별 개별 회귀를 통해 관세 효과의 이질성이 크고, 특히 한중 간 수출이 동반 감소하는 품목군(산업용 중간재 중심)에서는 상호 보완 가능성이 제기되어 추가적인 세부 분석이 필요
- ▶ 이를 바탕으로 대미 통상, 투자, 한미 협력기반 강화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
  - [통상] 미국의 일방주의 및 양자주의 압박에 대응해 일본 및 EU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강화하고, WTO 분쟁해결기구 정상화 및 규범 기반 복원 노력을 병행
  - [투자] 조세, 투자 인센티브, 규제 변화를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 추적하는 상시 모니터링 /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, 정책금융을 통해 대미 투자 불확실성 완화 및 MASGA 및 산업협력펀드 등 전략사업 금융지원 강화
  - [협력기반] 공급망 EWS 고도화(대상 품목 확대, 범부처 및 한미일 협력, 사전영향분석, TTX), 패키지형 공동 산업정책 추진, TTC형 범정부 경제안보 대화 채널 마련, 전용비자 등 파트너십 입법화 및 중장기적으로 '한국 전담' 연방기구 설립 검토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,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자국우선주의 색채가 점차 짙어짐.
  - 2016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‘미국우선주의(America First)’라는 가치를 내걸고 그간 미국이 주도해 왔던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강도 높게 비판
  -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,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악화된 점을 지적
  - 더불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을 통해 TPP 탈퇴(2017년), 한미 FTA 개정(2018년), USMCA 발효(2020년)를 이끌어냄.
  - 아울러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(25%) 및 알루미늄(10%)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으며,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3,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%의 관세를 부과(2018년 7월~)
  - 2018년 발효된 「감세 및 일자리법(Tax Cuts and Jobs Act)」(이하 TCJA)을 통한 국제조세 제 세계개편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행태 및 글로벌 자본 이동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킴.
  -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1기 정부의 관세 조치를 유지하거나 강화된 형태로 시행하였으며, 「반도체 및 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)」과 「인플레이션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)」(이하 IRA)의 보조금을 활용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
  - 상기의 정책 현황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단순히 정권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구조적 전환 과정에 있음을 시사
-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정책 현황을 통해 확인하고, 그중 대표적 대외경제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 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  -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자국우선주의로 규정하는 한편, 그중에서도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 견제 대외경제정책 현황을 정리
  -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의 대표 사례로 TCJA의 국제조세 세계개편을 선정하고 이것이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에 미친 영향을, 중국 견제 정책의 대표 사례로는 대중 관세부과 조치를 선정하여 동 조치가 중국 및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.

- 더불어 반도체, 제약·바이오,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별로 미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정권별로 비교하는 한편, 산업정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정성 분석하고자 함.

## 2. 미국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

### 1) 자국우선주의

#### ① 역사적 배경

-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자국 산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경제 불안이 고조될 때마다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.
  - 19세기 산업화 초기에는 유럽 대비 제조업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고,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고립주의가 강화
  - 1980년대에는 일본과의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선택적 보호무역정책이 시행되었으며,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국우선주의가 재부상

#### ②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자국우선주의 특징

-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미국우선주의는 관세를 협상 및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 조세, 투자, 보조금 정책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부흥을 추진하며, 거래적 접근 방식이 강화됨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.
  - 관세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을 넘어 상대국과의 교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
  - 국제조세정책, 투자규제, 산업보조금 정책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를 활용하여 미국 내 생산 기반 회복과 제조업 재건을 핵심 목표로 설정
  -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거래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## 2) 중국 견제

- 미국이 중국의 산업 및 기술 부상을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함에 따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
  - 중국의 급속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미국의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에 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
  - 특히 2015년 발표된 '중국제조 2025'를 기점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며, 중국 견제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공감대 형성
-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은 관세, 수출통제, 투자규제,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
  - [관세]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대규모 고율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 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유도하였으며, 이는 이어진 바이든 및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유지되고 있음.
  - [수출통제] 통신장비, 첨단 AI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, 양자컴퓨팅,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
  - [투자규제] 외국인투자심의회(CFIUS) 권한 확대를 통해 전략산업 내 중국 자본 유입 제한
  - [산업정책] 「반도체 및 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)」과 「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」을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본격화

## 3.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

### 1) 미국 국제조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영향

- 본 연구는 OECD 주요국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「감세 및 일자리법(TCJA)」 발효 전후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 변화를 비교 및 추정하였음.
  - TCJA를 통해 미국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저세율무형자산(GILTI), 국외 발생무형자산소득(FDII), 기반침식방지세(BEAT) 시행이 국제조세체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로부터 연구 주제를 발굴
  -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 변수를 포함한 다중 고정효과 선형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는데, 해당 분석을 위한 기본 회귀식은 아래와 같음.

$$\ln(FDI)_{i,j,t} = \beta_0 + \beta_1 TCJA_t + \beta_2 Treated_i + \beta_3 (TCJA \times Treated)_{i,t} + \beta_4 \ln(GDP \text{ 또는 } 1인당 GDP)_{i,t} + \beta_5 \ln(GDP \text{ 또는 } 1인당 GDP)_{j,t} + \beta_6 (CITR Diff)_{i,j,t} + \gamma_{i,j} + \delta_t + \epsilon_{i,j,t}$$

-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다중 고정효과 선형 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건연구(Event-Study) 방법론을 추가로 사용

$$\ln(FDI)_{i,j,t} = \alpha_0 + \sum_{d \neq -1} \beta_d I[year - TCJA \text{ year} = d]_{i,j,t} + \alpha_1 \ln(GDP \text{ 또는 1인당 } GDP)_{i,t} + \alpha_2 \ln(GDP \text{ 또는 1인당 } GDP)_{j,t} + \alpha_3 \ln(Dist)_{i,j} + \alpha_4 (CITR \text{ Diff})_{i,j,t} + \gamma_{i,j} + \delta_t + \epsilon_{i,j,t}$$

① TCJA가 미국 아웃바운드 FDI(OFDI)에 미친 영향

● TCJA는 미국의 OFDI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.

- OFDI 규모는 주로 투자시행국과 투자유치국의 경제 및 소득 수준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.
- TCJA 발효 이후 TCJA 발효 터미와 처치집단 터미 간 교차항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약 -0.21로  $p=1\%$ 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, 이는 미국 OFDI 누적액이 대조군 국가 대비 약 19% 감소했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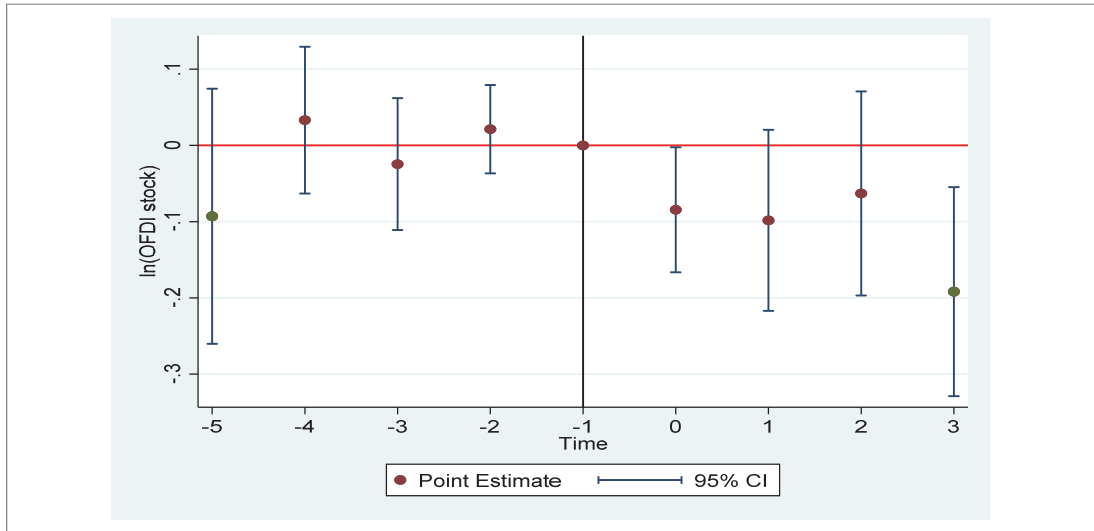
표 3-1-2. TCJA 국제조세 세제개편이 미국의 OFDI 누적액에 미친 영향(다중 고정효과 선형회귀분석)

구분	(1)	(2)	(3)	(4)
TCJA * Treated	-0.213*** (-4.15)	-0.208*** (-3.60)	-0.211*** (-4.12)	-0.207*** (-3.58)
투자 시행국 ln(GDP)	0.490*** (2.92)	0.489*** (2.92)		
투자 유치국 ln(GDP)	0.252*** (3.16)	0.253*** (3.18)		
투자 시행국 ln(1인당 GDP)			0.539** (3.12)	0.538** (3.12)
투자 유치국 ln(1인당 GDP)			0.349*** (3.67)	0.349*** (3.68)
양국 간 법인세율 차이		0.0440 (0.22)		0.0318 (0.16)
국가 쌍 고정효과	포함	포함	포함	포함
연도 고정효과	포함	포함	포함	포함
Adj. R <sup>2</sup>	0.947	0.947	0.947	0.947
관측치	22,256	22,256	22,256	22,256

주: 1) 괄호 안은 t-value를 나타냄.  
 2) \*\*\* p<0.01, \*\* p<0.05, \* p<0.1.  
 자료: 저자 추정.

- 사건연구에서도 TCJA 발효 이후 미국의 OFDI 누적액은 대조군 국가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TCJA가 미국의 OFDI 유출 억제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
  - TCJA 발효 이후(Time = 0 이후) 미국의 OFDI 누적액 변화는 대조군 대비 지속적으로 음(-)의 값을 기록했으며, 특히 발효 시점과 3년 후에는 각각  $p=5%$ ,  $p=1%$ 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이 심화되는 양상

그림 3-1-2. TCJA 국제조세 세계개편이 미국의 OFDI 누적액에 미친 영향(사례 연구 분석)(2)



자료: 저자 추정.

## ② TCJA가 미국 인바운드 FDI(IFDI)에 미친 영향

- 다중 고정효과 선형회귀분석에서 TCJA는 미국의 IFDI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음.
  - TCJA 발효 터미와 처치집단 터미 간 교차항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(+)의 값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아 TCJA가 미국의 IFDI 누적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.
- 다만 대조군을 좀 더 엄밀하게 설정한 사건 분석 결과 TCJA 시행 이후 미국의 IFDI 누적액은 대조군 국가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여 미국으로의 FDI 유입이 상대적으로 촉진되었음을 시사
  - TCJA 발효 이후에는 미국의 IFDI 누적액 증가세가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확대되었으며, 특히 발효 1년 후부터  $p=5%$  수준에서 유의한 양(+)의 효과가 관찰됨.

표 3-1-3. TCJA 국제조세 세제개편이 미국의 IFDI 누적액에 미친 영향(다중 고정효과 선형회귀분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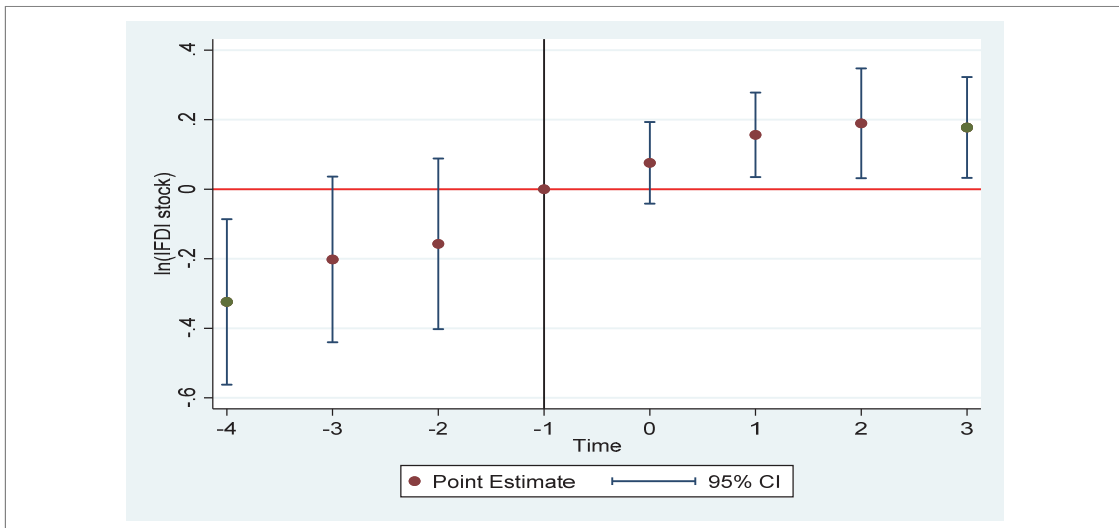
구분	(1)	(2)	(3)	(4)
TCJA * Treated	0.0997 (1.19)	0.145 (1.51)	0.0994 (1.19)	0.140 (1.46)
투자 시행국 ln(GDP)	0.184 (0.72)	0.179 (0.71)		
투자 유치국 ln(GDP)	0.550* (2.19)	0.545* (2.16)		
투자 시행국 ln(1인당 GDP)			0.255 (0.91)	0.250 (0.89)
투자 유치국 ln(1인당 GDP)			0.695** (3.01)	0.687** (2.96)
양국 간 법인세율 차이		0.338 (1.04)		0.300 (0.92)
국가 쌍 고정효과	포함	포함	포함	포함
연도 고정효과	포함	포함	포함	포함
Adj. R <sup>2</sup>	0.955	0.955	0.955	0.955
관측치	6,852	6,852	6,852	6,852

주: 1) 괄호 안은 t-value를 나타냄.

2) \*\*\* p(0.01, \*\* p(0.05, \* p(0.1).

자료: 저자 추정.

그림 3-1-4. TCJA 국제조세 세제개편이 미국의 IFDI 누적액에 미친 영향(사례 연구 분석)(2)



자료: 저자 추정 및 작성.

## 2) 대중국 관세인상의 경제적 영향

- 본 분석은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가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HS 단위에서 추정하고, 이를 통해 품목별 이질적인 관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함.

$$\ln IMP_{c,i,t} = \alpha + \beta_p^{CHN} TARIFF_{CHN,i,t} \times I(c = CHN) + \beta_p^{KOR} TARIFF_{CHN,i,t} \times I(c = KOR) + \delta_{c,i} + \tau_{y(t)} + \epsilon_{c,i,t}$$

### ① 대중국 관세 인상이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

- 분석 결과, 제301조 관세 인상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키고 한국의 대미 수출을 증가시키며, 추정 방식(PPML 여부)에 따라 탄력성의 차이가 존재
  - [관세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]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1%p 상승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1.1% 감소하고,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.6% 증가

표 3-2-1.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

구분		$\beta^{CHN}$ (대중국 관세 인상→중국의 대미 수출)	$\beta^{KOR}$ (대중국 관세 인상→한국의 대미 수출)
전체 회귀분석	추정치	-1.081	1.602
	표준오차	0.503	0.535
	p-value	0.032	0.003
	N	2,059,560	
	패널 수	19,083	
개별 회귀분석 (전체 결과)	25%	-2.59	-1.30
	50%	-0.68	1.07
	75%	1.09	3.98
	평균	0.18	1.88
	표준편차	23.39	28.33
	N (평균)	1,800.68	
개별 회귀분석 (10% 유의)	25%	-4.67	-1.84
	50%	-1.96	2.93
	75%	1.38	6.40
	평균	-1.13	3.63
	표준편차	12.52	40.65
	N (평균)	1,746.75	1,917.53

주: 1) 표준오차는 패널단위로 군집한 결과(clustered standard error)를 나타냄.

2) '전체 회귀 분석'은 [수식 3-2-1]을 HS 4단위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전체 자료를 한 번에 추정한 결과를 의미함.

3) 개별 회귀분석에서 "전체 결과"란 추정이 가능했던 품목 전체를 바탕으로 한 요약 통계를 제시하며, "10% 유의"란 추정치 중 각  $\gamma^{KOR}$ ,  $\beta^{CHN}$ ,  $\beta^{KOR}$ 가  $p=10\%$ 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함. "N (평균)" 이란 HS 4단위 개별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표본 수의 평균을 의미함.

자료: 저자 작성.

## ② 한중 간 대미 수출 관계 분석

- 품목별 분석 결과, 제301조 관세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이 동시에 감소한 품목들은 상호 보완재일 가능성이 있으며, 특히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품목 수준의 보다 정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
  - 이러한 품목들은 주로 산업용 중간재로서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보완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중국산 수입 차질이 한국산 수출 감소로 연쇄적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음.

표 3-2-6.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품목 현황

(단위: 억 달러, %)

HS4	품목명	2016~24년 미국의 수입 변화 (억 달러)		추정 결과에 따른 수입 변화 (2016년 대비)		대중국 실효관세율 (2024년, %)
		중국	한국	중국	한국	
8708	자동차 부품	2.9	18.6	-92.9	-35.6	0.3
9401	의자	-28.4	1.1	-66.3	-2.2	0.2
8479	기타 산업용 기계	4.9	18.1	-18.7	-2.2	0.2
8421	원심분리기, 여과기, 청정기	4.6	4.8	-13.0	-2.0	0.2
8415	공기조절기	5.4	0.8	-19.1	-1.9	0.1
9405	조명기구	-34.0	-0.3	-147.1	-1.6	0.3
4016	가황한 고무 제품	0.2	-0.2	-3.6	-1.0	0.2
8428	리프트, 엘리베이터, 컨베이어 등	3.1	9.6	-5.1	-0.9	0.2
7106	은	-0.5	2.6	-3.5	-0.9	0.2
3402	유기계면활성제	0.3	0.4	-2.6	-0.9	0.3
5703	양탄자류	-1.2	0.3	-7.7	-0.8	0.3

주: 모형 추정 결과 한국의 수입 감소가 가장 큰 10개 품목을 선별해 제시함.  
자료: 저자 작성.

## 4. 정책적 시사점

- [통상]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집권 정당과 무관하게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 일본 및 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통상 질서를 복원하는 한편,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강화할 필요
  -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은 트럼프 1기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2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,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결합한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증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 증대

- 특히 상호관세 행정명령과 미일 무역합의 이행 감시 조항에서 보듯 무역합의 미이행 시 추가 관세부과 등 압박 수단이 상례화될 수 있어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  - 이에 EU, 일본 등 미국과 경제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통상 및 산업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
- [투자] 미국 주도의 조세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을 강화하는 동시에, 정책금융을 활용한 전략산업 중심의 대미 투자 지원 체계를 확충할 필요
    - TCJA 분석에서 나타났듯, 글로벌 FDI 환경은 점차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    - 미국 중심의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, 주요국의 조세 및 투자 정책 변화를 산업 및 기업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민간에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
    -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MASGA 프로젝트 및 한미 협력펀드 등 전략산업 중심의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.
- [협력기반 강화] 미국의 자국우선주의하에서 한미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조기경보, 공동 산업정책, 범정부 경제안보 대화, 인력·입법·문화 교류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
    - 미국 중심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조기경보시스템(EWS) 고도화, 패키지형 공동 산업정책 추진, 미-EU 간 TTC를 참고한 범정부 경제안보 대화 채널 구축 등 제도적 협력 기반을 확충할 필요
    - 아울러 한국 전용 비자 쿼터 신설을 포함한 한미 파트너십의 입법화 노력과 함께, 문화·교육·인력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'한국 전담' 연방 기구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 **KIEP**